



안산



이승연



이은경



김국영



모일환



전웅태

지구촌 스포츠 축제 '더 큰 감동' 부탁해

◇베이징동계올림픽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월 4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빙상), 옌칭(썰매), 장자쿠우(설상)에서 열린다.

대회 슬로건은 '함께하는 미래' (Together for a Shared Future)이며 올림픽 마스코트는 얼음 옷을 입은 판다를 형상화한 '빙둥둥'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92개국 참가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참가국 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IOC 징계를 받아 국가 자격으로는 나올 수 없다.

도핑 샘플을 국가 차원에서 조작한 혐의를 받은 러시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부터 2020도쿄올림픽,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국가 자격으로는 올림픽에 나갈 수 없고, 선수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이 가능하다.

북한은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징계로 지난해 9월 IOC로부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 징계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베이징동계올림픽에는 출전 자격을 따낸 북한 선수들이 있으면 국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 출전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2개, 종합 순위 15위권을 목표로 한다. 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은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키 스노보드, 스킨레이팅, 여자 컬링 등이지만 확실한 금메달 기대 종목은 쇼트트랙이다. 지난해 말까지 28명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으며 엔트리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 6개 종목 60명의 태극전사가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저우아시안게임

2022아시안게임은 월드컵과 개최연도가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23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9년 하노이 아시안게임의 반납 과정에서 18회 대회가 1년 앞당겨지고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이 열리자 기존대로 월드컵 개최연도에 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은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야구와 가라테, 스포츠클라이밍이 한때 제외됐다가 다시 추가됐으며 e스포츠와 브레이크 댄스도 정식 종목으로 포함됐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종목별로 이미 대표 선발전을 시작했다. 종목별 대표선수들은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뒤 숨을 고르고 2024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항저우아시안게임은 도쿄올림픽에서와 같이 광주·전남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다.

양궁에서는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을 달성하며 국민스타로 등극한 안산(광주여대 3년)을 비롯해 3월 광주여대 입학 예정인 오예진이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통과한 상태다.

자카르타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은경(순천시청)은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1위로 통과했다. 도쿄행 티켓을 놓쳤던 그는 다시 한번 아시안 게임 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연(광주남구청)도 도쿄올림픽에 나서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항저우행을 노리고 있다. 1차 선발전은 통과했다.

한국 근대5종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 전웅태(광주시청)도 항저우아시안게임을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전웅태는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첫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근대5종은 승마 종목이 제외되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이 기존 펜싱·수영·승마·레이저런(육상+사격)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여자 에페 대표팀 '말안나' 강영미(광주서구청)도 2022년 태극마크를 확정했다. 강영미는 자카르타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 이후 도쿄올림픽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국체전 이후 진행된 대표선발전에서 태극마크를 유지한 그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다시 한번 메달을 노린다.

육상에서는 남자 100m 김국영(광주시청)이 한국신기록에 도전하며 조선타점 후 광주시청에 입단해 본격적인 성인 무대에 뛰어드는 모일환도 400m에서 기록 도전에 나선다.

여자복싱 대표선수임애지도 다시 한번 메달을 노린다. 자카르타아시안게임과 도쿄올림픽에서 큰 기대를 모았으나 메달권에 들지 못한 그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한국체대를 졸업하는 임애지는 화순군청 복싱팀 창단과 함께 고향팀 소속으로 성인 무대에 뛰어든다.

축구에서는 금호고 출신인 엄원상과 엄지성(광주FC)의 태극마크가 관심이다. 2019폴란드 U20 월드컵의 원어와 스트라이커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었던 엄원상은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으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1999년생인 엄원상

은 23세 이하만 출전 가능한 항저우아시안게임까지 될 수 있다. 2002년생인 엄지성(광주FC) 역시 대표팀 승선을 노려볼만하다. 2019브라질 U17 월드컵의 주전 원어로 한국의 8강행을 이끌었던 엄지성은 고교 졸업 후 프로에 직행했고, 데뷔 시즌 광주의 주전으로 활약했다. 오는 9월 출발하는 '벤투호' 터기 전지훈련 명단에 발탁돼 생애 첫 성인대표팀 태극마크를 달았다.

야구에서는 KIA 타이거즈 원수 투수 이외리의 승선 여부가 관심이다. 도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그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도 발탁 가능성이 높다.

광주체육 출신 배드민턴 천재 안세영(삼성생명)도 아시안게임 메달 사냥에 나선다. 현재 세계랭킹 4위인 안세영은 자카르타와 도쿄에서 경험을 쌓은 만큼 이번 항저우에서야말로 메달을 획득할 절호의 기회다. 안세영은 올림픽이 끝난 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2021 인도네시아마스터즈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자 유도 강유정과 박다솔(이상 순천시청)도 대표 선발전을 치르고 있다. 도쿄올림픽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이들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카타르월드컵

2022 카타르월드컵은 2022년 11월 21일 개막해 12월 18일까지 32개 나라가 출전한 가운데 열전을 벌인다. 5-7월이 아닌 시기에 월드컵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타르는 월드컵이 통상적으로 열리는 6월 기온이 낮에는 섭씨 40도를 넘는 등 축구 경기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11월로 개최 시기를 변경했다.

최근 월드컵이 열린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는 한 나라 안에서 이동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카타르는 우리나라 전라남도, 경상남도 정도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경기장 간 이동 거리가 짧다는 장점이 있다.

32개 나라가 출전하는 카타르월드컵에는 이미 13개 나라가 본선행을 확정했다.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해 독일, 덴마크, 브라질, 프랑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스페인, 세르비아, 잉글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아르헨티나가 일찌감치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아시아 지역 예선을 치르는 우리나라는 아직 본선행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 단계다.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4승 2무로 조 2위인 우리나라(승점 14)는 조 3위 아랍에미리트(UAE)의 승점 6을 8점이나 앞서 있다.

남은 네 경기에서 UAE가 전승을 하더라도 승점 18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승 2무만 하면 월드컵 본선 티켓을 주는 조 2위 이상을 확보한다.

우리나라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면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르게 된다. 남은 일정은 1월 27일 레바논과 7차전, 2월 1일 시리아와 8차전 원정경기다. 1승 3무 2패(승점 6)로 조 3위에 자리한 아랍에미리트(UAE)의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르면 7차전에서 카타르행을 확정할 수도 있다.

지역 선수 중에는 엄원상과 광주대 출신 조규성의 '벤투호' 승선 여부가 관심이다. 엄원상은 23세 이하와 성인대표팀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으나 벤투 감독의 최종 호출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천 상무에서 군 복무 중인 조규성은 최근 꾸준히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고 있어 카타르행 티켓 획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진화 기자



엄원상



엄지성



강유정



박다솔



안세영



임애지



강영미